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유입 · 정착 도모

전북도-정읍시-남원시-김제시-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전북뿌리산업연합회, 업무협약…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적극 추진 다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는 10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하태욱 남원부시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이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8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10월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전북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시군별 공모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업-외국인 매칭을 위한 해당 지역 기업체별 외국인 인력 수요 및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과 조사, 대학 간담회 개최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이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관광벤처 공모전 개최

2개 분야 총 7개 기업 선발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사업화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9월 1일까지 전라북도 관광벤처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지역상생 관광벤처 등 2개 분야 총 7개 기업을 선발한다. △도내 관광 분야 창업자(창업 7년 미만) 및 관광연계 사업 희망 기창업자(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는 '지역혁신 관광벤처' 부문 △전북관광관련 신규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인 타지역 3년 이상의 사업자는 '지역상생 관광벤처'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함께 올해 구축 예정인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사업 공고의 붙임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메일(gumner7231@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부산, 인천 등을 비롯해 기존 4개 센터와 올해 전북, 광주, 울산, 경북이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도, 민간주도형 물관리 실천사업 추진

기후위기 대응 물 문화 실천 · 육성 · 인공습지 조성 등… 주민 자발적 참여 · 실천 확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민의 물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민간부분에서 실천 가능한 물문화 육성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물관리 실천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물관리 실천사업은 오염이나 훼손된 생태계 복원, 물 관련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물 관련 민간 부분의 실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22년 5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고했고, 현장실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사업계획서 심의, 보조금 심의를 통해 최종 3개 단체를 선정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빗물저금통, 빗물정원조성, 물관리 모니터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민간차원의 물문화 실천사업과 섬진강을 주제로 한 사진·글짓기, 둘레길 걷기 행사 등 물문화 육성사업,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절감을 위한 수령천 수변 인공습지 조성 사업이다.

전북도는 주민 스스로 실천을 통해 물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를 충족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물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사업 성과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물 관련 교육과 민간단체 애로사항과 사업 적절성 등을 주기적으로 건설팅 예정이다.

전라북도 홍인기 물환경관리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 스스로 물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관리 실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들도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여름철 산림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많은 피서인파가 산과 계곡 등을 찾는 시기를 맞아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지정화 및 주요 계도·단속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등이다.

피서객들을 대상, 산림내 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 까지 실시 계획이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동할 수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국민 의식 수준 향상에도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림내 희귀식물·조경수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원안위, 한빛 3호 재가동 허용

"상부 돔 표면 녹 발견… 재도장 등 보수 조치"

"부식 강한 재질 증기발생기 교체… 안전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 3호기 원전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빛 3호기는 4호기와 함께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중 공극(구멍)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안위는 지난 2020년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한빛 3호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이번에도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대한 점검이 수행됐다. 점검 결과, 기준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지만 상부 돔에서 표면에 녹 부위 1개가 발견됐다.

원안위는 상부 돔 표면의 녹 부위와 관련,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 등의 보수 조치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기간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1㎜ 두께의 얇은 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고,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안전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온재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해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뉴시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2022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유일 교수 역임
• 전주매일 부사장
•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양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연간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자격 디스트 • 웃음코칭사 • 심리상담사
• 저서 "365 스피치 지혜라니 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5만원 • 문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놀이협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